

죄의식 못느끼는 청소년 범죄 '심각'

절도범 "학교 가야하니 풀어줘"...훤친 명품 패딩 입고 경찰 출석도 미미한 처벌 악용 광주 매년 범죄 2000건...처벌 강화 등 대책 필요

중학생 A(15)군은 지난 5일 오후 6시 5분께 광주시 동구 한 금은방에서 53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쳐 달아났다. 주인에게 팔찌를 사겠다고 말한 뒤 금팔찌를 손목에 채워주자 그대로 도망친 것이다. A군은 한술 더 떠 다른 금은방을 찾아 훔친 금팔찌를 408만원에 팔아 넘기는 대답함도 보였다.

지난달 30일엔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중학생 B(15)군이 경찰에 넘겨졌다. B군은 이날 광주시 동구 한 금은방을 찾아 주인에게 "한번 착용해 보겠다"고 말한 뒤, 40돈짜리 손금 목걸이를 손에 쥐고 도망갔으나, 얼마 못가 금은방 주인에게 붙잡혔다.

으로 훔쳤다. 지난달 18일에는 광주의 한 백화점에서 168만원짜리 명품 패딩을 훔친 뒤 SNS에 자랑하듯 사진을 찍어 게시한 고등학교 1학년생 2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에 출석할 때도 훔친 명품 패딩을 입고 오는 등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샀다.

광주에서 영화 뺑치는 수법으로 무장한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강력 범죄에 속하는 금은방 털기 범죄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소년법상 소년법(만 19세 미만)과 촉법소년(만10~14세 미만)에 해당해 성인과 달리 미미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알고 악용하고 있다.

같은 기간 소년법의 살인·강도·강간·절도·폭행 등 5대 범죄 검거건수도 2017년 1814건, 2018년 1623건, 2019년 1536건 등에 이른다.

5대 범죄는 다소 감소 추세지만 범행수법이나 죄질은 해를 거듭할수록 흉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소년범죄 중 살인사건은 없었지만, 지난해엔 무려 3명이 살인 혐의로 검거됐다. 소년법 강도 검거건수도 2018년 9명에서, 지난해엔 3배나 늘어난 27명이 검거됐다.

소년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검거건수도 2017년 205명, 2018년 246명, 2019년 274명 등 증가세다. 미성년자 범죄는 예전과 달리 갈수록 지능화·흉포화되고 있지만, 법적 처벌은 미미해

청소년 범죄를 사실상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4~19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촉법소년'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자 위탁,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10세 미만은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

아동·청소년 전문가들은 일부 청소년들이 어려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범죄에 악용하는 것도 모자라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례도 꽤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정서 조선이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대적 환경이 변한 만큼 죄질 나쁜 소년범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선 지도와 보호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더 기가 막힌 것은 경찰에 넘겨진 이후 B군의 행동과 말이다. B군은 "다음날 학교에 가야 하니 빨리 풀어줘라", "미성년자를 이렇게 계속 붙잡아둬도 되는 거냐"라는 등 반성언어는 경찰들을 혼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3일에는 광주시 서구 삼촌동 한 골목에 주차된 차량 2대에서 지갑 등 금품을 훔친 C(18)군이 입건됐다. C군은 서구와 북구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12대의 차량에서 현금 등 금품을 무차별적

이에 따라 소년법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소년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소년법 범죄 검거는 2017년 2777건(구속 42명), 2018년 2438건(구속 24명), 2019년 2529건(23명)으로 연평균 200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

나주 3M공장 유해물질 유출...인명피해 없어

지난 11일 새벽 5시 30분께 나주시 문평면 한국3M 나주공장에서 점착제(CEF-30) 50여 kg이 공장 바닥으로 유출돼 공장 자체 방제단에 의해 모두 제거됐다.

점착제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아크릴아미드가 5%가 포함돼 있고 나머지 95%는 일반화학물질이다. 이번 점착제 유

출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장 측은 오전 9시 10분께 소방당국과 영산강 환경유역청 등에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유출 경위를 조사중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g@

남편 살해 60대 아내 뒤에 범행 도운 내연남 있었다

증거 인멸 혐의 남성 광주서부경찰, 긴급체포

남편을 집에서 살해한 60대 여성(광주일보 2020년 1월 6일자 6면)에게는 범행을 도운 내연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자택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여·61)씨의 범행을 도운 내연남 B(62)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 11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B씨는 범행 당일 A씨를 만나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혈흔을 닦아낸 형질 등을 건네받은 뒤 은폐·소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자택 내·외부 CCTV를 분석해 B씨가 범행 당일 범행장소를 찾은 사실을 밝혀냈다. 또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벌인 결과 통화기록과 메시지 내용을 통해 B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했다.

현재까지 B씨가 증거인멸 이외에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상 A씨

의 범행이 우발적 살인이 아닌 계획된 살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B씨와의 공범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8일 남편 C(55)씨의 사인이 둔기에 의한 사망이 아닌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1차 부검 소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가족진술 등에 따르면 C씨는 B형 간염과 당뇨를 앓고 있어 평소 과음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A씨가 경찰조사에서 밝힌 남편 C씨가 오후 8시께 밥과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해 쓰러졌다는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등이 나온다.

경찰은 다음주 발표 예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액 분석 결과(2차 부검 소견)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혈액 분석 결과에 따라 A씨가 범행에 악물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A씨가 지숙된 가정폭력에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평소 A씨와 남편 C씨가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박중철 열사 33주기 추모 박중철 열사의 33주기를 이틀 앞둔 12일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 조성 예정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박 열사의 33주기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대공분실 509호에 놓인 영정 앞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7년간 딸들 성폭행한 친부 징역 13년

방관한 친모도 유죄

7년간 미성년인 친딸들을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피해자 정보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어 면제한다고 밝혔다. 남편의 성폭행을 알고도 방치한 아내 B(49)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이수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7년간 어린 친딸들을 수차례 강간, 유사 강간했다. 딸이 이성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시키기도 했다"며 "자녀들을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극히 불량

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인 친딸 2명을 수차례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들이 초등학교인 시절부터 잠을 자거나 숙제를 하고 있을 때도 수시로 성폭행했다.

그는 평소 사소한 이유로 딸들의 뺨을 때리거나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며 욕설을 했고 성폭행을 시도하면서도 싫다고 하면 때리겠다고 겁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 B씨는 2013년 남편으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듣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딸들을 남편과 격리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자발찌 찬 채 모녀 성폭행 미수범 징역 8년

"금방 출소" 큰소리 쳐 공분도

전자발찌를 찬 채 8세 어린이와 어머니가 사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50대가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7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지만, 술에 취해 이웃집에 침입해 범행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범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밤 9시 40분께 광주시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와 8살짜리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

도하고 옆에서 자고 있던 어린이에게까지 뽀뽀를 하려 했으나 잠에서 깬 아이가 도망가 다른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미수범이니 금방 출소할 것"이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층 주민에게 엘리베이터 교체 분담금 부과는 부당" 판결



○...엘레베이터를 쓰지 않는 1층 주민에게 엘리베이터 교체에 관한 분담금을 똑같이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

○...1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7단독(이광열 판사)에 따르면 낡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엘리베이터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1·2층 주민에게도 균등하게 인상했다며 서울 양천구도

아파트 1층 주민 조모씨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주자 대표인 피고는 1·2층 입주자의 입장, 공동·차등 부과와 관련된 다른 아파트 사례 등을 입주자에게 충분히 알린 후 합리적으로 결정했어야 한다. 추가 의견 수렴 없이 설문 결과를 토대로 공동 부과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승소 이유를 설명.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